

## 차 례

차 례 . . . . .	1
1 글 예시 . . . . .	3
2 단락의 정렬 . . . . .	4
2.1 중앙정렬 (환경) . . . . .	4
2.2 중앙정렬 (명령) . . . . .	5
2.3 왼쪽정렬 (환경) . . . . .	6
2.4 왼쪽정렬 (명령) . . . . .	7
2.5 오른쪽 정렬 (환경) . . . . .	8
2.6 오른쪽 정렬 (명령) . . . . .	9
3 여러 가지 환경 . . . . .	10
3.1 인용 (quote 환경) . . . . .	10
3.2 인용 (quotation 환경) . . . . .	11
3.3 인용 (verse 환경) . . . . .	12
3.4 verbatim 환경 . . . . .	13
3.5 \verb 명령 . . . . .	14
4 줄 바꾸기 . . . . .	15
4.1 \par . . . . .	15
4.2 \\ . . . . .	16
5 들여쓰기와 내어쓰기 . . . . .	17
5.1 \indent . . . . .	17
5.2 \noindent . . . . .	18
5.3 \hangfrom . . . . .	19
5.4 \hangindent . . . . .	20
6 인자(parameter) 조정하기 . . . . .	21
6.1 문단 사이의 간격 (\parskip) 조정하기 . . . . .	21
6.2 들여쓰기 간격 (\parindent) 조정하기 . . . . .	22
7 기타 간격 조정 . . . . .	23
7.1 \biskip, \medskip, \smallskip . . . . .	23
7.2 \vspace, \hspace . . . . .	24
7.3 \vskip, \hskip . . . . .	25

7.4	<code>\vfill</code> , <code>\hfill</code> . . . . .	26
8	참고할 만한 웹 페이지 . . . . .	27

## 1 글 예시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처럼 백슬래시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2 단락의 정렬

### 2.1 중앙정렬(환경)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

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 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2.2 중앙정렬 (명령)

환경이란 `\begin{...}` 와 `\end{...}` 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 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 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 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 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

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 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 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 (개행) `\\` 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 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 나 `\noindent` 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 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 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 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 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 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 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2.3 왼쪽정렬 (환경)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 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2.4 왼쪽정렬 (명령)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 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2.5 오른쪽 정렬 (환경)

환경이란 `\begin{...}` 와 `\end{...}` 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시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 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 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 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

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 가 있다. 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 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꾸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 (개행) `\\` 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을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 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 나 `\noindent` 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 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 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 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 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 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 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

## 2.6 오른쪽 정렬(명령)

환경이란 `\begin{...}` 와 `\end{...}` 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시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 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 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 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

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 가 있다. 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 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꾸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 (개행) `\\` 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을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 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 나 `\noindent` 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 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 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 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 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 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 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# 3 여러 가지 환경

#### 3.1 인용(quote 환경)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꾸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# 3.2 인용 (quotation 환경)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을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# 3.3 인용 (verse 환경)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# 3.4 verbatim 환경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

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textbackslash 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# 3.5 \verb 명령

환경이란 `\textbackslash begin\{...\}`와 `\textbackslash end\{...\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textbackslash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꾸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4 줄 바꾸기

### 4.1 `\par`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시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꾸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4.2 \\\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\\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

## 5 들여쓰기와 내어쓰기

### 5.1 `\indent`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시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5.2 \noindent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# 5.3 \hangfrom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5.4 \hangindent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6 인자(parameter) 조정하기

### 6.1 문단 사이의 간격(\parskip) 조정하기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시(\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6.2 들여쓰기 간격(\parindent) 조정하기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\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 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7 기타 간격 조정

### 7.1 `\bi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7.2 `\vspace`, `\hspace`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

### 7.3 \vskip, \hskip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`\`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을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7.4 \vfill, \hfill

환경이란 `\begin{...}`와 `\end{...}`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 `enumerate`, `itemize`, `inparaenum`, `description` 등은 모두 환경의 예이다. 그에 반해 `\maketitle`, `\clearpage`, `\tableofcontents` 처럼 백슬래쉬(\) 다음에 일정한 문자열이 입력됨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. 명령은 그 이후에 입력된 모든 문자열에 영향을 준다. 따라서 중괄호를 잘 활용해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.

예를 들어 어떤 단락을 중앙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`\begin{center}`, `\end{center}`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`\center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왼쪽정렬과 오른쪽 정렬의 경우에는 `center` 대신 각각 `flushleft`, `flushright`를 넣어주면 된다.

그 외에 유용한 환경에는 인용에 관련된 환경들(`quote` 환경, `quotation` 환경, `verse` 환경 등), 초록을 넣는 환경(`abstract` 환경), `verbatim` 환경 등이 있다. `verbatim` 환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명령에는 `\verb`가 있다.

문단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`\par`를 이용한다. 한편, 줄을 한 칸 비워놓아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 줄은 바뀌되 문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때에는(개행) `\\`를 사용한다.

매 문서, `chapter`, `section`, `subsection`, `subsubsection` 등의 가장 첫 문단을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. 굳이 첫 문단을 들여쓰기하고 싶을 때에는 `indentfirst`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면 된다. 들여쓰기를 임의로 하거나 하지 않게 하려면 `\indent`나 `\noindent`를 사용한다. 내어쓰기를 할 때에는 `\hangfrom{...}`을 사용하면 편하다. 추가적인 들여쓰기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`\hangindent`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들여쓰기의 `indent`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(parameter)는 `\parindent`이다. 또 문단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인자는 `\parskip`이다. 이 인자들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`\setlength{parametername}{length}`와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. `\parindent`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`parindent` 패키지를 불러와야 한다.

이 외에도 `\bigskip`, `\medskip`, `\smallskip`은 간편하게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`\vspace{...}`, `\hspace{...}`, `\vskip{...}`, `\hskip{...}`, `\vfill`, `\hfill`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.

## 8 참고할 만한 웹페이지

- [http://en.wikibooks.org/wiki/LaTeX/Paragraph\\_Formatting](http://en.wikibooks.org/wiki/LaTeX/Paragraph_Formatting)
- [http://en.wikibooks.org/wiki/LaTeX/Text\\_Formatting](http://en.wikibooks.org/wiki/LaTeX/Text_Formatting)